

해남의 맛에 물들다...3~5일 사흘간 미남축제

〈味南〉

이순신 밥상·치유 밥상·사찰음식 미남주제관 음식 100선 선보여

요리대회·탈곡 등 각종 체험행사도

해남미남(味南)축제가 오는 3~5일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농어업군인 해남의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건강 음식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대표 먹거리 축제인 '미남'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해남만의 차별화된 맛과 멋을 담아내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음식축제로 해남미남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음식공간으로 미남주제관을 운영한다.

미남주제관에서는 이야기가 담긴 음식 100선을 선보이며 총 9회에 걸쳐 시식타임도 운영한다.

군은 초대밥상을 통해 해남의 맛과 멋을 선보일 계획으로, 올해 시범운영과 평가 이후 미식관광 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난중일기 속 이순신 밥상 20종을 비롯해 치유밥

상, 사찰음식 40종, 증기밥상과 마을음식 등 40종으로 해남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남푸드관에서는 해남 외식업소들이 참여해 다양한 해남의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읍면 단체가 중심이 된 주전부리관에서는 해남 농수산물로 만든 주전부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 행사도 열린다. 해남 515개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한 '515 해남미남김치 비빔행사'가 4일 열리며, 해남쌀과 김으로 만든 '2023 미남떡국 나눔행사'는 5일 열린다.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가족 요리대회'와 내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해남음식을 주제로 한 '전국 미남 그리기 대회'도 마련됐다.

야외 캠핑장 분위기의 추억의 구이터 운영, 내 품에 고구마 담기, 해남쌀 촉감놀이 및 탈곡체험 등 가족단위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해남 농수산물과 맛있는 먹거리를 축제 현장에서 가득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미남축회에 출격하는 김, 고구마, 배추 등 해남 특산물.

〈해남군 제공〉

무안 황토실빵 대박 조짐 낙지축제 시범 판매 인기



무안 전통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먹거리 '황토실빵' (사진)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은 최근 막을 내린 '무안갯벌낙지축제' (10월27~28일)에서 선보인 황토실빵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1일 밝혔다.

황토실빵은 전통시장상인회와 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이 선보이는 무안 전통시장 특화 먹거리이다.

무안 특산물인 양파와 농겨, 고구마 모양으로 빚어진 것이 특징이다.

양파빵에는 양파를 곁들인 채소 소를 넣었다. 농겨빵에는 국산 팥소를, 고구마빵에는 고구마 앙금을 채워 넣었다.

축제 기간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은 고구마 빵이었다.

양파빵을 맛본 손님들은 양파 냄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했다.

이번 시범 판매에서 준비한 재료를 모두 소진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무안군 측은 설명했다.

무안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과 지역 시장상인회는 오는 17~19일 열리는 'YD페스티벌'에서도 황토실빵 시식·판매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하나인 황토실빵이 무안을 대표하는 간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 참조기·민물장어 가정간편식으로 만나다

수산식품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

영광 특산물인 참조기와 민물장어를 간편식으로 만나다.

영광군은 지난 30일 '가정간편 수산식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참조기와 민물장어 등의 가정간편식(HMR)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영광굴비의 소비가 최근 줄어들면서 영광군은 굴비 원료인 참조기와 민물장어 등을 활용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영광 참조기와 민물장어 간편식 개발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가정간편식은 혼자서도 완성도 높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간편 수산식품 연구 용역을 맡은 업체는 이날 보고회에서 수산물 동향에 대해 모든 연령층이 쉽고 간편하게 참조기와 민물장어를 즐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용역은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된다.

가정간편 수산식품 2종을 개발하고 내년 말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가정간편식품 개발 용역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참조기와 민물장어 소비가 확대되어 영광군 수산업 전반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서점 없던 신안에 '1004 책방' 문 열어...도서관 기능 겸해

압해도 가족센터 1층에 오픈

신안군 운영비 일부 지원

신안군 압해읍사무소 1층 신안군가족센터 건물에 148㎡(45평) 규모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민간 책방이 문을 열었다.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은 전국에서 서점이 없는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이번 '1004 책방'은 신안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선정했다.

'1004 책방'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달에 최대 3권까지 빌릴 수 있다.

반납은 읍면사무소 또는 신안군 도서관과 1004 책방 중 어디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책방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일요일과 법정 휴일은 휴무다.

또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인문 강좌, 독서 진흥대회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주민의 문화 충족을 위한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책방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신안군 복지재단을 통해 크레도 오프쇼어에서 신간도서 2700여 권, 학지사 등 4개 출판사로부터 7300여 권 등 모두 1만여 권의 새 책을 기증받



신안군 압해읍사무소 1층 신안군가족센터 건물에 148㎡(45평) 규모의 '1004 책방'이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 참여한 주민들이 책방을 둘러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았다. 이 곳에는 책방뿐 아니라 400여 점의 장난감이 비치된 공동육아나눔터와 차와 커피를 마실수 있는 '1004 카페'가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은 가족이 함께 와서 가장

회제가 되는 신간도서를 맡겨 읽고,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독서 문화가 살아있는 신안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보건소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참가자들이 건강 진단을 받고 있다.

진도보건소 어르신 AI 건강관리 42명 참여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대상

진도군보건소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하반기 대상자에 42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스마트폰 앱과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건강기기(혈압계·혈당 측정기·체중계·손목 활동량계)를 연동해 건강을 관리받는다.

전담 인력이 실시간으로 건강관리 조언을 제공한다.

참가자에게 6개월간 임무를 받아 실천해야 한다.

▲규칙적 혈당 측정 ▲손목 활동량계 매일 착용 ▲매일 혈압 측정 ▲매일 외출 ▲매일 세 끼 식사 ▲제때 약 복용 ▲주 1회 몸무게 측정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 ▲매일 걷기 등이 있다.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면 진도군으로부터 지역 화폐인 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가자들의 신체활동 개선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식생활 개선율은 3.1%포인트, 서비스 만족도는 4%포인트 증가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형 대중교통을 논의할 '시내버스 시민참여단'이 지난 28일 시민토론회 준비를 위한 모임을 열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첫 일정

50명 사전 모임... 토론회 준비

목포형 대중교통 개선을 이끌 '시내버스 시민참여단' 50명이 첫 일정을 시작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지난 28일 사전 모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내버스 의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진행할 시민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는 우선 시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참여단에 공유했다. 시내버스 개선 공론화에 관해 설명하고 토론회 과정을 소개했다.

목포시는 노선개편, 운영 체계 확립, 유무형 자산 공유화 등 공론화 주요 의제 내용을 설명했다.

시민토론회는 앞으로 4일, 18일, 12월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분임 토의, 전문가 설명, 의견 선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9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수단, 성별, 나이 등으로 나눠 무작위 추천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단 50명, 예비인원 10명을 선정했다.

박종홍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

완도 소안도 노지 감귤 본격 수확...올해 180t

완도군 소안도에서 노지 감귤 수확을 시작했다. 소안도 감귤은 대부분 극조생종이다.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수확한다.

소안도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라 높은 당도(10~11브릭스·Brix)를 자랑한다.

수확한 뒤에도 부패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신선도가 좋아 보관 기간이 길다.

완도 소안도에서는 올해 180t의 감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안도에서는 지난 2009년 감귤 작목반을 결성했다. 작목반에서 활동하는 모든 농가가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인증을 획득했다.

이달 현재 62개 농가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택배를 통해 감귤을 직거래하거나 소안 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농산물도매시장 등 판매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방울토마토 생산비 절감 온실 '천창 개폐' 기술 선보여

영암군이 방울토마토 생산성을 높이는 온실 천창 개폐기술을 선보였다.

영암군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서호면 한 농가에서 '방울토마토 전남 톱(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연차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지역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암군은 방울토마토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랙 피니언 천창 개폐'와 'LED 조명 스마트 육묘시설' 기술을 선보였다.

랙피니언 천창 개폐 기술은 태양광 투과율을 유지하면서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녔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방울토마토 생산비를 1kg당 3230원에서 2965원으로, 8.2%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ED 스마트 자가 육묘 시설은 외부 기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량 묘를 생산할 수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